



#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 차례

I. 서론	3
II. 데이터 및 분석 방법	5
III.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 현황	10
IV.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과 자금조달 가능성	18
V. 결론 및 시사점	24

## 요약

- 국내 스타트업의 특허 및 상표 출원 활동은 유럽\* 및 미국\*\* 등과 같이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 EUIPO·EPO(2023)에 따르면,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경우 초기 자금조달 성공 확률은 미출원 기업 대비 10.2배, 액시 성공 가능성은 3.2배까지 상승

\*\* MIT(2016)는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이 미보유 기업 대비 35배 높다는 조사 결과 관측

### 〈 스타트업 특허·상표 활동 현황 〉

- 업종별 지식재산 활동 분석 시 제조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은 특허 활동, 정보통신업 및 숙박음식점업은 상표 활동, 금융보험업은 특허와 상표 활동이 모두 활발
- 스타트업 투자단계가 시드에서 초기, 후기로 진행됨에 따라 특허 및 상표 등의 출원활동은 증가하는 추세

### 〈 스타트업 자금조달에 대한 지식재산의 영향 〉

- 특허나 상표 출원 시 미출원 기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은 최대 6.3배 상승
- 국내·외 지식재산권 모두 출원 시 미출원 기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은 최대 7.1배 상승
- 특허·상표 모두 출원 시 미출원 기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9.0배 증가
- 지식재산권 출원 규모별로 분석하면 미출원 기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 상승 정도가 가장 큰 경우는 후기 투자단계에서 20건 이상 출원한 스타트업으로 17.1배 증가
- 투자자금 회수 및 스타트업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인 액시 가능성도 지식재산권 출원 시 미출원 기업 대비 2배 이상이고, 최대 5.9배까지 상승

### 〈 결론 및 시사점 〉

-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유치 확률 증대는 스타트업 성공과 연관이 깊은 점에서 특허 및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투자 연계 정책이 필요
- 기술력에 기초한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조달 및 성공을 실현하려면 창업 이후 지속적인 지식재산 활동 필요



# 1. 서론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 I. 서론



## ●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성공에 특허·상표가 중요한 역할

-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시장파급효과가 큰 산업 내의 창업·신생 기업이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설립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기업을 의미
- 특허 보유는 스타트업의 투자를 비롯한 성장성 및 사업 성공 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성기, 2019)
  - 2007~2012년 기준 프랑스의 스타트업 중 특허를 보유한 경우 성공률은 30%이나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성공률은 8%에 불과(전자신문, 2017.06.09.; 미국 일리노이공대 로스쿨 및 프랑스 국립광업학교 연구자료 재인용)
  - 미국의 스타트업 대상 설문 결과 벤처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67%가 특허를 투자 유치의 결정적 요인으로 판단(특허청, 2017.02.; Patenting by Entrepreneurs, 2008, Berkeley 재인용)
- 한국의 벤처창업기업은 상표 보유로 안정적 제품 판매·공급과 사업 모델 고부가가치화 시도(김혁준·한유진, 2024)
- 미국의 사례 분석 시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미보유 기업 대비 성공 가능성이 35배까지 상승(MIT, 2016)

## ● EUIPO 및 EPO의 공동 연구 결과, 특허·상표 출원이 스타트업 자금조달 가능성 상승

- EUIPO·EPO(2023)는 “Patents, trade marks and startup finance”에서 특허·상표 출원 현황 및 해당 요인이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
  -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정보는 EPO 및 EUIPO 데이터를, 자금조달 데이터는 Crunchbase\*를 참고했으며, 1999년 이후 설립된 유럽 스타트업 투자단계 참여·미참여 기업을 포괄하여 총 298,665건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수집
    - \* Crunchbase는 유럽 스타트업의 투자단계별 투자정보를 추적하고 있는 민간 데이터 기업
  -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을 고려한 산업별 지식재산 활동 강도\* 파악
    - \* EUIPO·EPO(2023) “Patents, trade marks and startup finance”의 p.27에서 언급한 개념을 참고
  - 스타트업 투자단계별 특허·상표 출원 활동 선행 여부\* 및 특허·상표 출원의 지역적 범위\*\*에 따른 자금조달 가능성 평가
    - \*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경우를 분석한 후, 특허만 출원한 경우, 상표만 출원한 경우,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경우를 추가 분석
    - \*\*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지역적 범위가 자국 내에 한정되는 경우와 EU 연합 전반에 걸쳐있는 경우를 비교
- 유럽연합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 활동 강도는 생명공학(특허 출원 기업 : 약 50%, 상표 출원 기업 : 약 47%)과 과학 및 엔지니어링(특허 출원 기업 : 약 25%, 상표 출원 기업 : 약 38%)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
- 특허·상표 출원 여부 및 출원 지역 범위에 따라 스타트업 투자자금 조달 가능성에 유의한 차이 발생
  -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확률은 특허나 상표 중 하나만 출원한 경우 최대 3.5배,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경우 최대 10.2배 증가하므로 단일 특허·상표보다 복합 특허·상표 출원 시 자금조달 가능성 증가
  -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확률은 자국 내 특허·상표 출원한 경우 최대 3.8배, EU 특허·상표 출원한 경우 최대 6.1배 증가하며, 자국 범위보다 EU 범위 특허·상표 출원 시 자금조달 가능성 증가

## ● 한국 스타트업 자금조달에 특허·상표 출원 활동이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 EUIPO·EPO(2023)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이 성공적인 자금조달 및 투자회수 확률을 높일 가능성 확인 필요
-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획득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스타트업 자금조달 정보와 특허·상표 정보를 연계한 분석 실시



## II. 데이터 및 분석방법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 II. 데이터 및 분석 방법



### 1 분석 데이터

#### ● 특허·상표 데이터

- 한국특허청의 특허 및 상표 출원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출원건수 통계 확보
-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특허 및 상표권, 디자인권 국제출원(PCT 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및 국내 특허 기반 해외 직접출원 정보를 수집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출원 활동 여부에 대한 정보 수집

#### ● 기업 데이터

- 스타트업 자금조달 내역 데이터는 혁신의숲\*에서 제공하는 2,615개\*\* 스타트업 DB에 기초
  - \* 스타트업의 투자단계별 투자자금 내역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에 활용
  - \*\* 기업별로 다년간에 걸친 복수의 투자유치를 고려하면, 기업 전체의 투자유치 데이터 개수는 7,726건으로 집계
- 스타트업 투자단계는 EUIPO·EPO(2023)처럼 시드(seed 및 pre-A 단계), 초기(Series-A, Pre-B, Series-B 단계), 후기(Series-C 단계 이상~Pre-IPO 단계), 엑시트(IPO 및 M&A 단계)으로 구분

[표 1] 데이터 출처 및 수집 정보

출처	데이터 구분	세부 수집정보
한국특허청 DB	국내 특허·상표 정보	연도별 특허권 및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 정보
	해외 특허·상표 정보	한국특허청이 수리관청인 국제출원(특허: PCT, 상표: 마드리드, 디자인: 헤이그 출원) 및 국내 특허 기반 해외 직접 출원 정보
스타트업 DB (혁신의숲)	기업 정보	개별 기업의 설립연도, 연도별 스타트업 투자단계, 산업(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 기준) 등

#### ● 이상치 제거 및 데이터 연계

- 사업체명, 설립연도, 산업분류 누락 및 불확실한 스타트업 투자단계\* 등 주요 정보가 누락된 사례는 제외한 후 분석
  - \* 지원금, 주식양수도 및 스타트업 투자단계 비공개 등으로 정확한 투자 단계를 알 수 없는 데이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분석대상 스타트업의 설립연도 이전 투자내역 및 특허·상표 출원 내역\* 등도 제외
  - \* 업종·기업명 전환 이전 합병이나 특허·상표 출원 이력 이전 등으로 존재 가능
- 전체 투자 표본 7,726건 가운데 지원금, 주식양수도 및 비공개, 설립연도 이전 투자 및 지식재산 출원 내역 등의 2,023건 데이터를 제외하면 유의한 투자 건수는 5,703건으로 집계
- 특허·상표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의 사업자 번호 매칭을 통해 스타트업의 특허·상표와 투자정보를 매칭

#### ● 분석데이터 기초 통계

- (기업의 산업분포) 산업분류코드 대분류 기준으로 정보통신업(1,191개, 45.6%), 제조업(751개, 28.7%), 과학기술서비스업(338개, 12.9%)에 집중

## II. 데이터 및 분석 방법



- (산업별 기업당 평균누적투자금액) 금융보험업(6,250억원), 전기가스업(2,680억원) 및 도소매업(1,150억원)이 상위권 형성
- (지식재산권 출원 기업 분포) 산업별로 특허 및 상표를 출원한 기업 수는 다음과 같음
  - (특허) 전체 표본 가운데 2,162개 기업이 출원했으며, 상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정보통신업(945개), 제조업(714개), 과학기술서비스업(302개)에 집중
  - (상표) 전체 표본 가운데 2,288개 기업이 출원했으며, 대부분 정보통신업(1,080개), 제조업 (621개)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292개)에 집중

[표 2] 스타트업의 업종별 분포, 평균 누적투자금액 및 특허·상표 출원 기업 수

업종	개수(비중)	산업별 기업당 평균 누적투자금액(억원)	특허·상표 출원 기업 수	
			특허	상표
농림어업	8 (0.31%)	160	6	8
제조업	751 (28.72%)	335	714	621
전기가스업	2 (0.08%)	2,680	1	2
수도재생업	4 (0.15%)	150	3	2
건설업	2 (0.08%)	93	2	2
도소매업	187 (7.15%)	1,150	111	168
운수창고업	17 (0.65%)	554	11	15
숙박음식점업	6 (0.23%)	270	3	6
정보통신업	1,191 (45.54%)	385	945	1,080
금융보험업	18 (0.69%)	6,250	16	17
부동산업	5 (0.19%)	134	0	3
과학기술서비스업	338 (12.9%)	273	302	292
사업시설서비스업	41 (1.57%)	542	20	33
교육업	20 (0.76%)	422	16	18
보건복지업	2 (0.08%)	30	1	2
예술여가서비스업	13 (0.5%)	163	5	11
기타서비스업	10 (0.38%)	329	5	8
계	2,615 (100.0%)	-	2,162	2,288

## II. 데이터 및 분석 방법



### ● 스타트업 단계별 분포 및 최종 데이터셋 구성

- 분석대상 스타트업 개수 2,615개, 특허·상표 출원 정보 및 이상치 제거 등을 종합한 분석 범위는 기간의 경우 1999~2025년, 관측치의 경우 31,182건, 투자유치 및 엑시트(투자 회수) 건수는 5,703건

[표 3] 스타트업 단계별 분포(연도별·기업별 복수투자 고려)

구분	세부 구분	기업 수	투자유치 및 엑시트 건수	투자유치 및 엑시트 합계	
투자 단계	시드	seed	1,050	1,488	2,176
		pre-A	539	688	
	초기	series-A	1,199	1,572	2,477
		pre-B	30	31	
		series-B	672	874	
	후기	series-C	248	323	592
		series-D	63	79	
		series-E	15	20	
		series-F	4	5	
		series-G	2	4	
	엑시트 (투자 회수)	IPO	178	178	458
		M&A	251	280	
계		2,615*	5,703	5,703	

\* 하나의 기업이 여러 단계의 투자 유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 단계 전반에 걸쳐 분석 가능한 스타트업은 2,615개로 추산

## 2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과 자금조달 가능성 분석 방법론

### ● 생존분석 및 콕스비례위험모형

- 생존분석은 본래 특정 요인으로 인해 생명체 사망이나 사업체 폐업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나 확률을 추정
- 본 연구에서는 위험 발생을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라는 긍정적 사건으로 재해석하여 특허·상표 출원 여부에 따른 자금조달 가능성 추론에 초점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허·상표 활동 여부와 자금조달 상황 반영을 위해 생존분석 모형 중 하나인 콕스비례위험모형\* 활용
  - \* 콕스비례위험모형은 분석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존재 여부에 따른 생존율을 사건(생/사) 발생비로 추정하는 모형이며,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인 스타트업의 주요변수는 특허·상표, 생존율 관련 사건은 투자자금 조달 여부에 각각 해당
- 콕스비례위험모형은 EUIPO·EPO(2023) “Patents, trade marks and startup finance” 연구에서 활용한 모형과 동일

## II. 데이터 및 분석 방법



### ● 주요 변수

- (종속변수) 특정 시기 스타트업의 투자 단계별 자금조달 여부
- (독립변수) 특허·상표 출원활동과 자금조달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변수 구성
  - (스타트업 특허·상표 활동 여부) 국내 및 해외 특허나 상표 출원 여부를 변수로 설정
  - (국내·해외 지식재산권 비교) 국내 특허나 상표만 출원한 경우 국내 및 해외 특허나 상표 출원한 경우를 변수로 설정
  - (지식재산권 출원 유형) 국내 및 해외 특허만 출원한 경우, 국내 및 해외 상표만 출원한 경우와 국내 및 해외 특허·상표 모두 출원한 경우를 변수로 설정
  - (지식재산권 출원 규모) 국내 및 해외 특허와 상표 출원 건수의 합계별로 1~9건, 10~19건 및 20건 이상으로 구간을 분류하여 변수로 설정

[표 4] 분석모형별 특허·상표 관련 변수

구분	분석 내용	변수처리	
종속변수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여부	투자유치 단계	시드 단계 해당 시 1, 아니면 0
			초기 단계 해당 시 1, 아니면 0
			후기 단계 해당 시 1, 아니면 0
			엑시트(투자 회수) 단계 해당 시 1, 아니면 0
독립변수 (특허·상표 출원활동과 자금조달)	스타트업 특허·상표 활동 여부	국내 및 해외 특허·상표 중 하나라도 출원 시 1, 아니면 0	
	국내·해외 지식재산권 비교	국내 특허나 상표만 출원 시 1, 아니면 0	
		국내·해외 특허나 상표 모두 출원 시 1, 아니면 0	
	지식재산권 출원 유형 비교	국내 및 해외 상표만 출원 시 1, 아니면 0	
		국내 및 해외 특허만 출원 시 1, 아니면 0	
		국내 및 해외 특허·상표 모두 출원 시 1, 아니면 0	
	지식재산권 출원 규모별 효과	(1구간) 국내·외 특허·상표 출원 건수 합계가 1~9건이면 1, 아니면 0	
		(2구간) 국내·외 특허·상표 출원 건수 합계가 10~19건이면 1, 아니면 0	
(3구간) 국내·외 특허·상표 출원 건수 합계가 20건 이상이면 1, 아니면 0			

- (통제변수) 주요 업종별 효과 분석을 제외하면, KSIC 산업대분류코드에 따른 산업을 통제변수로 선정



# III.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 현황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 III.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 현황



### 1 지식재산 활동 강도의 정의

#### ● 지식재산 활동 강도는 EUIPO·EPO(2023)를 참고하여 특허 및 상표 활동 강도로 산정

- (용어 정의) 지식재산 활동 강도는 분석대상 산업에 속한 기업들 중 매년 특허 및 상표 출원을 수행한 기업 비율로 정의
  - 본 연구에서 특허 및 상표 활동 강도 산정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및 중분류(정보통신업·제조업 내 하위 산업) 기준
  - 특허 및 상표 활동 강도가 높은 산업은 분석대상 산업의 평균 값보다 높은 값을 기록한 산업군을 의미
- (세부 개념 정의) 산업별 특허(상표) 활동 강도는 특정 산업 내 기업별 시계열 관측 기간(단위: 년) 중 특허(상표)출원의 연도 개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i 산업 내 n개 기업이 존재하면 i 산업 특허(상표) 활동 강도는 아래 수식으로 표현

$$- i \text{ 산업의 특허(상표) 활동 강도} = \frac{1}{n} \sum_{j=1}^n \left\{ \frac{IP_{ij} (= i \text{ 산업 내 } j \text{ 기업의 특허(상표) 활동연도 수}^*)}{Obs_{ij} (= i \text{ 산업 내 } j \text{ 기업의 시계열 관측기간(단위: 년)})} \right\}$$

\* 특허(상표)활동 횟수는 특허출원 건수의 합계가 아니라 특정년도에 출원 건수에 관계없이 특허(상표)출원 이력이 있으면 1회로, 없으면 0회로 간주 → 2022년 i 산업 내 A 기업이 상표(특허)를 10건 출원하든 1건 출원하든 특허(상표)출원 비율 계산 시 1회로 산정

- (예시) k 산업 내 기업이 3개 존재할 경우, 첫 번째 기업(기업1)은 1999~2022년 동안 특허출원이 있었던 연도가 9회, 두 번째 기업(기업2)은 2010~2018년 동안 특허출원이 있었던 연도가 2회, 세 번째 기업(기업3)은 2017~2024년 동안 특허출원이 있었던 연도가 4회일 경우, k 산업의 특허 활동 강도는 다음의 결과 도출

$$- k \text{ 산업의 특허 활동 강도} = \frac{1}{3} \left( \frac{\text{기업1 특허출원 활동연도 수}}{\text{기업1 시계열 관측기간(단위: 년)}} + \frac{\text{기업2 특허출원 활동연도 수}}{\text{기업2 시계열 관측기간(단위: 년)}} + \frac{\text{기업3 특허출원 활동연도 수}}{\text{기업3 시계열 관측기간(단위: 년)}} \right)$$

$$= (1/3) \times \{(9/24) + (2/9) + (4/8)\} = (1/3) \times (1.097) = 0.3657 (\approx 36.6\%)$$

- (특허 및 상표 활동 강도 의미) 상기 개념과 예시를 통해 산출한 비율은 특정 산업군의 기업이 수행한 지식재산 활동의 전반적 활성화 정도와 연관
  - 즉, 특정 산업군의 특허나 상표 활동 강도가 100%이면 해당 산업군 내의 기업이 전부 매년 특허나 상표를 1건 이상 출원했다는 것이며, 0%이면 해당 산업군 내의 기업이 전부 매년 특허나 상표 출원 이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
- (참고사항) 창업년도 등의 차이로 인해 개별기업의 시계열 관측치 수는 불일치하므로 표본기업 수에 동일한 값을 곱하여 관측치 수나 특허(상표)활동 건수를 산출하는 것은 아님

#### ● 본 연구에서는 산업 전반, 정보통신업 및 제조업 내 중분류 산업 중심의 분석 실시

- (산업 전반) 표준산업분류 기준 대분류 산업별로 상표활동 횟수와 특허활동 횟수를 파악한 후, 상기 정의를 참조하여 산업별 특허 활동 강도와 상표 활동 강도를 산출
- (정보통신업) 타 산업 대비 관측치가 많은 점에서 중분류 기준으로 추가 분석
- (제조업) 하위 산업군 특성에 따른 특허 및 상표 활동 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분류 기준으로 추가 분석

### Ⅲ.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 현황



#### 2 주요 산업별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출원 강도

● 한국 스타트업 산업 전반의 평균 특허 활동 강도는 35.9%, 평균 상표 활동 강도는 29.4%로 집계

- 지식재산 활동 강도가 높은 산업은 특허와 상표 활동 강도가 모두 상기 비율을 능가한 산업으로 판단

[표 5] 산업 대분류별 지식재산 활동 강도 분석 현황

업종	표본기업 수	특허 활동 강도	상표 활동 강도
농림어업	8	39.2%	28.9%
제조업	751	48.9%	27.7%
전기가스업	2	20.0%	18.9%
수도재생업	4	13.8%	5.1%
건설업	2	46.7%	12.1%
도소매업	187	16.2%	38.7%
운수창고업	17	21.2%	28.5%
숙박음식점업	6	8.2%	51.4%
정보통신업	1,191	30.7%	29.8%
금융보험업	18	36.0%	34.7%
부동산업	5	0.0%	26.7%
과학기술서비스업	338	44.5%	27.0%
사업시설서비스업	41	11.5%	21.2%
교육업	20	19.1%	41.4%
보건복지업	2	5.0%	40.5%
예술여가서비스업	13	5.5%	33.2%
기타서비스업	10	11.9%	26.8%
계	2,615	-	-
평균 특허 및 상표 활동 강도	-	35.9%	29.4%

### Ⅲ.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 현황



● **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농림어업은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

- (제조업) 상표 활동 강도는 27.7%로 평균보다 소폭 낮지만 특허 활동 강도는 48.9%로 전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치
- (과학기술서비스업) 상표 활동 강도는 27.0%로 평균 대비 낮으나 특허 활동 강도는 44.5%로 상당히 높은 편
- (농림어업) 상표 활동 강도는 28.9%로 평균 수준이나 특허 활동 강도는 39.2%로 평균을 상회

●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교육업 및 숙박음식점업은 상표출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

- (정보통신업) 특허 활동 강도는 30.7%로 평균 대비 낮으나 상표 활동 강도는 29.8%로 평균보다 높은 편
- (도소매업) 특허 활동 강도는 16.2%로 평균 대비 낮으나 상표 활동 강도는 38.7%로 평균보다 높은 편
- (교육업) 특허 활동 강도는 19.1%로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상표 활동 강도는 41.4%로 상당히 높은 편
- (숙박음식점업) 특허 활동 강도는 8.2%로 매우 낮은 편이나 상표 활동 강도는 51.4%로 전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치

● **금융보험업은 특허 및 상표 출원이 모두 평균이상으로 활발**

- (금융보험업) 상표 활동 강도는 34.7%, 특허 활동 강도는 36.0%로 모두 평균 대비 높은 수준

### Ⅲ.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 현황



#### 3 정보통신업 중분류별 지식재산 활동 강도 분석

● 표본기업 수가 가장 많은 정보통신업의 경우 산업 중분류별 지식재산 활동 강도 분석 실시

- 정보통신업의 평균 상표 활동 강도는 30.7%, 특허 활동 강도는 29.8%로 추산되며, 두 비율보다 높은 중분류 업종의 경우 지식재산 활동 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판단

[표 6] 정보통신업 중분류별 지식재산 활동 강도 분석 현황

업종	표본기업 수	특허 활동 강도	상표 활동 강도
출판업(소프트웨어 등)	851	34.0%	29.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10.5%	36.1%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1	11.1%	44.4%
우편 및 통신업	3	0.0%	36.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2	30.7%	25.1%
정보서비스업	164	21.8%	29.9%
계	1,191	-	-
평균 특허 및 상표 활동 강도	-	30.7%	29.8%



● 컴퓨터·시스템 분야는 특허출원이, 정보서비스 및 영상오디오 분야는 상표출원이 활발

-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시스템통합관리업) 특허 활동 강도가 30.7%로 평균이나 상표 활동 강도는 25.1%로 평균보다 낮은 편
- (정보서비스 및 영상오디오 분야) 상표 활동 강도는 29.9%로 평균과 근접하나 특허 활동 강도는 21.8%로 평균을 하회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상표 활동 강도는 44.4%로 가장 높으나 특허 활동 강도는 11.1%로 매우 낮은 편

● 출판업은 특허 및 상표 출원이 모두 활발

- (출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포함하며, 특허 활동 강도는 29.9%, 상표 활동 강도는 34.0%로 모두 평균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 Ⅲ.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 현황



#### 4 제조업 중분류별 지식재산 활동 강도 분석

##### ● 세부 산업 특성이 다양한 제조업의 경우 산업 중분류별 지식재산 활동 강도 분석 실시

- 제조업의 평균 특허 활동 강도는 48.9%, 평균 상표 활동 강도는 27.7%로 추산되며, 두 비율보다 높은 중분류 업종의 경우 지식재산 활동 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판단

[표 7] 제조업 중분류별 지식재산 활동 강도 분석 현황

업종	표본기업 수	특허 활동 강도	상표 활동 강도
식품제조업	55	26.8%	46.1%
음료제조업	6	10.9%	56.2%
섬유제조업(의복 제외)	8	44.0%	30.7%
의복제조업	12	11.6%	33.8%
가죽가방신발제조업	4	34.2%	51.7%
목재제조업(가구 제외)	1	40.0%	0.0%
펄프종이제조업	3	32.1%	36.5%
인쇄기록매체복제업	2	38.9%	26.9%
석유석탄제조업	1	36.4%	0.0%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	79	38.4%	38.6%
의료물질제조업	56	57.4%	31.5%
고무플라스틱제조업	16	41.2%	17.2%
비금속광물제조업	4	59.8%	16.8%
1차금속제조업	2	35.0%	0.0%
금속가공제조업(기계·가구 제외)	14	37.8%	19.6%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제조업	127	50.9%	16.6%
의료정밀광학기계제조업	1,445	57.4%	29.9%
전기장비제조업	60	57.7%	22.2%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100	57.7%	22.9%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14	47.8%	20.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3	51.5%	20.2%
가구제조업	5	40.9%	47.2%
기타 제품제조업	13	33.6%	33.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	26.7%	13.3%
<b>계</b>	<b>751</b>	<b>-</b>	<b>-</b>
<b>평균 특허 및 상표 활동 강도</b>	<b>-</b>	<b>48.9%</b>	<b>27.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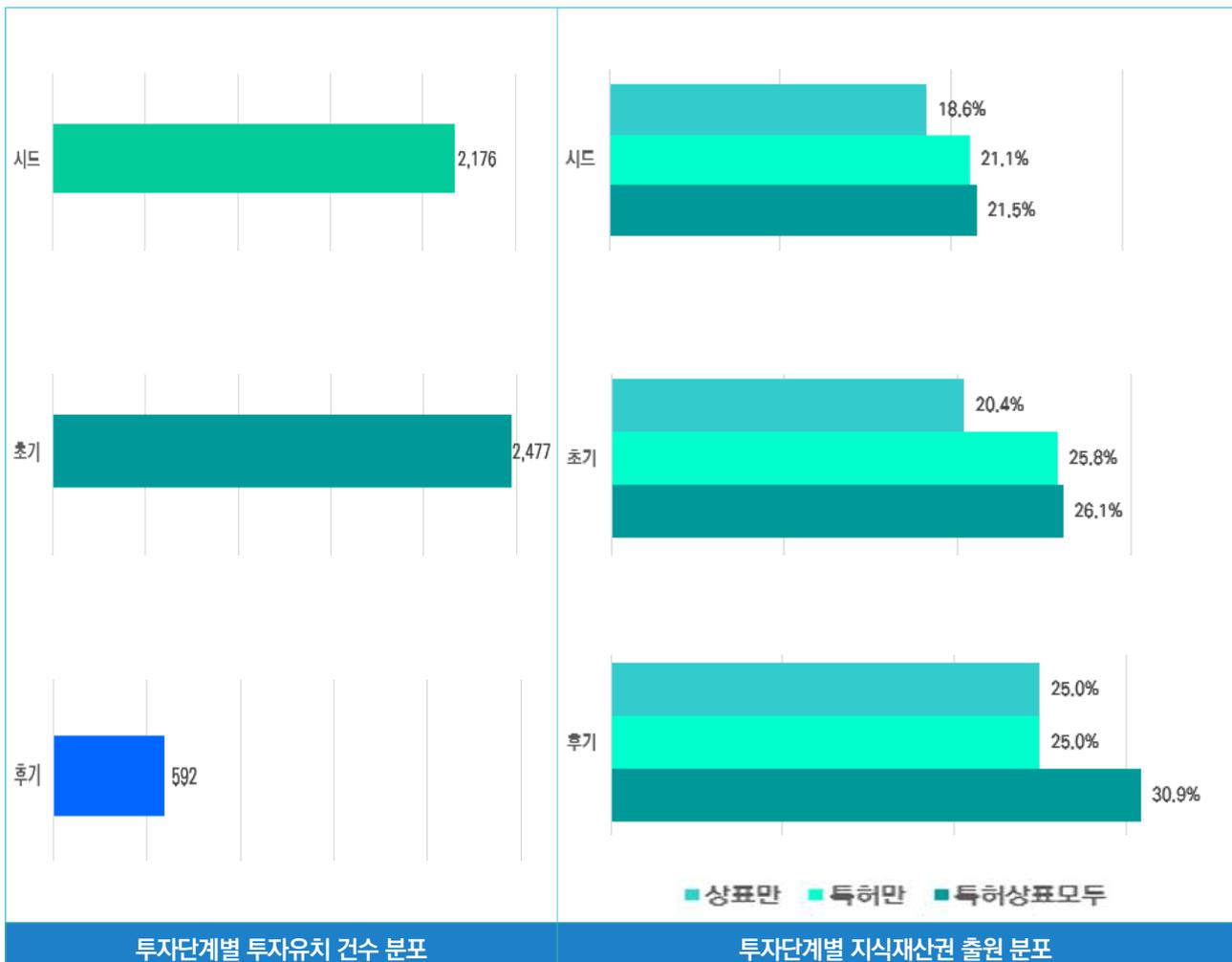
### Ⅲ.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 현황



#### 5 스타트업 투자단계별 투자유치와 지식재산 출원 활동

##### ● 스타트업 투자단계가 시드에서 초기 및 후기로 진행될수록 지식재산 출원 활동 증가 경향 발생

- 최종 데이터셋의 투자유치 건수 5,703건\*을 투자단계별로 분류하면 시드는 2,176건(38.2%), 초기는 2,477건(43.4%), 후기는 592건(10.4%), 엑스는 458건(8.0%)으로 분포
  - \* 분석대상 기업 수는 2,615개이나 해당 기업들이 여러 해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한 해에 복수의 투자유치를 실시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투자유치 건수는 기업 수 이상으로 집계
- (시드 단계) 총 2,176건 중 상표만 출원한 경우는 404건(18.6%), 특허만 출원한 경우는 459건(21.1%),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경우는 468건(21.5%)으로 파악
- (초기 단계) 총 2,477건 중 상표만 출원한 경우는 505건(20.4%), 특허만 출원한 경우는 638건(25.8%),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경우는 647건(26.1%)으로 파악
- (후기 단계) 총 592건 중 상표만 출원한 경우는 148건(25.0%), 특허만 출원한 경우는 148건(25.0%),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경우는 183건(30.9%)으로 파악





## IV.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과 자금조달 가능성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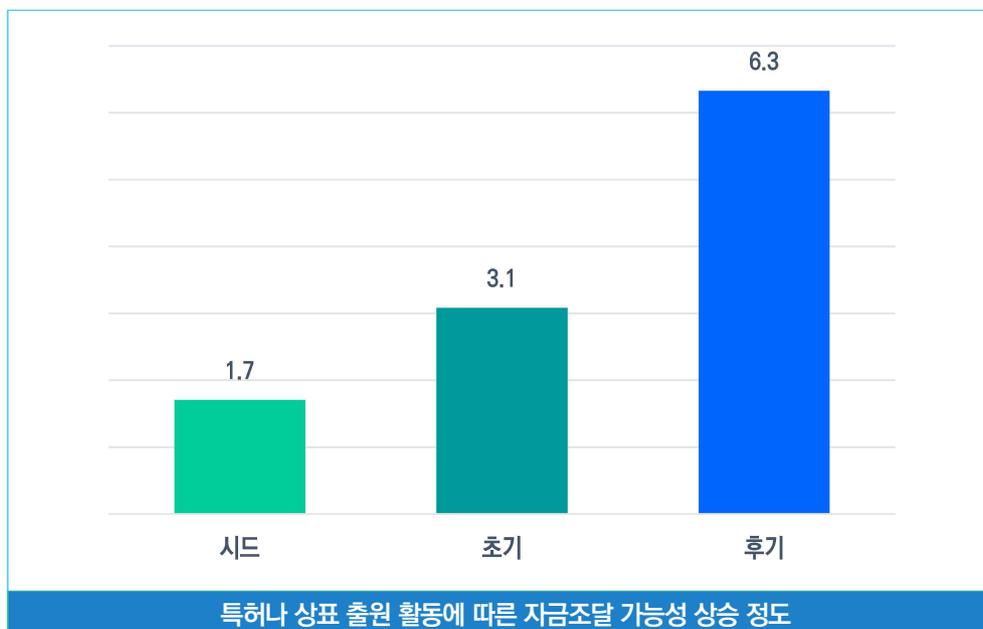
## IV.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과 자금조달 가능성



※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한 지식재산의 영향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II. 데이터 및 분석방법' 내에 '2.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과 자금조달 가능성 분석 방법론'에서 설명한 방법론을 적용

### 1 특허 또는 상표 출원이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 특허·상표 중 한 분야라도 출원 활동을 수행한 스타트업은 특허·상표 미출원 스타트업 대비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소 1.7배에서 최대 6.3배까지 상승
  - 미출원 기업 대비 시드는 1.7배, 초기는 3.1배, 후기는 6.3배까지 자금조달 가능성 증가
  - 전반적으로 미출원 기업 대비 특허나 상표 출원 시 투자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스타트업 후기 투자단계에서 그 가능성 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남



[표 8] 콕스비레위험모형 분석 결과(1): 스타트업 특허·상표 활동 여부와 자금조달 가능성

종속변수: 스타트업 투자단계		시드	초기	후기
독립변수	특허나 상표 출원 활동 여부	1.707***	3.083***	6.328***
통제변수	산업 더미	포함		
	관측치	31,182		
	기업수	2,615		
	Log-likelihood	-21,146.983	-23,423.243	-5,357.6273

\*\*\* :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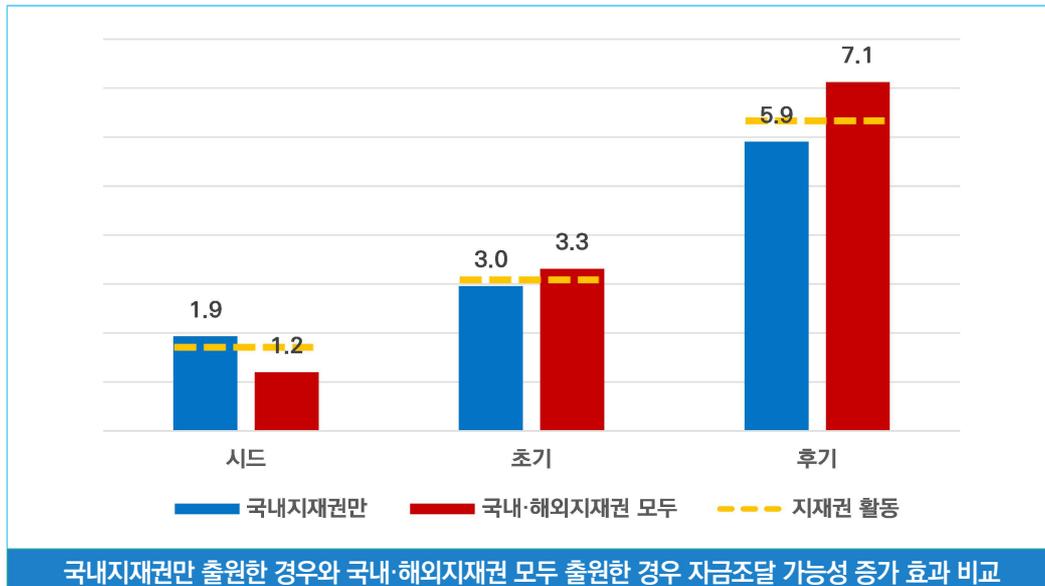
## IV.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과 자금조달 가능성



### 2 국내외 특허·상표 출원 시 자금조달 가능성 비교

#### ● 국내지재권만 출원 vs 국내·해외지재권 모두 출원

- 국내지재권만 출원한 스타트업은 미출원 기업 대비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소 1.9배에서 최대 5.9배이며, 국내·외 지재권 모두 출원한 경우는 최소 1.2배에서 최대 7.1배까지 증가
  - (시드) 국내지재권만 출원한 스타트업의 경우 미출원 기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이 1.9배 높으나 국내·해외지재권 모두 출원 스타트업은 미출원 기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이 1.2배 높은 값을 기록\*
    - \* 미출원 기업 대비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유는 시드 단계에서 국내·해외지재권을 모두 출원하는 기업이 적기 때문으로 추정
  - (초기) 미출원 기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은 국내·해외지재권 모두 출원한 스타트업은 3.3배 증가하며, 국내지재권만 출원한 스타트업의 3.0배보다 높은 값을 기록
  - (후기) 미출원 기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은 국내·해외지재권 모두 출원한 스타트업은 7.1배 증가하며, 국내지재권만 출원한 스타트업의 5.7배보다 높은 값을 기록



[표 9] 콕스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2): 국내지재권만 출원한 경우와 국내·해외지재권 모두 출원한 경우의 자금조달 가능성

종속변수: 스타트업 투자단계		시드	초기	후기
독립변수	국내지재권만 출원	1.935***	2.963***	5.907***
	국내·해외지재권 모두 출원	1.202***	3.315***	7.127***
통제변수	산업 더미	포함		
	관측치	31,182		
	기업수	2,615		
	Log-likelihood	-21,119.135	-23,420.771	-5,335.7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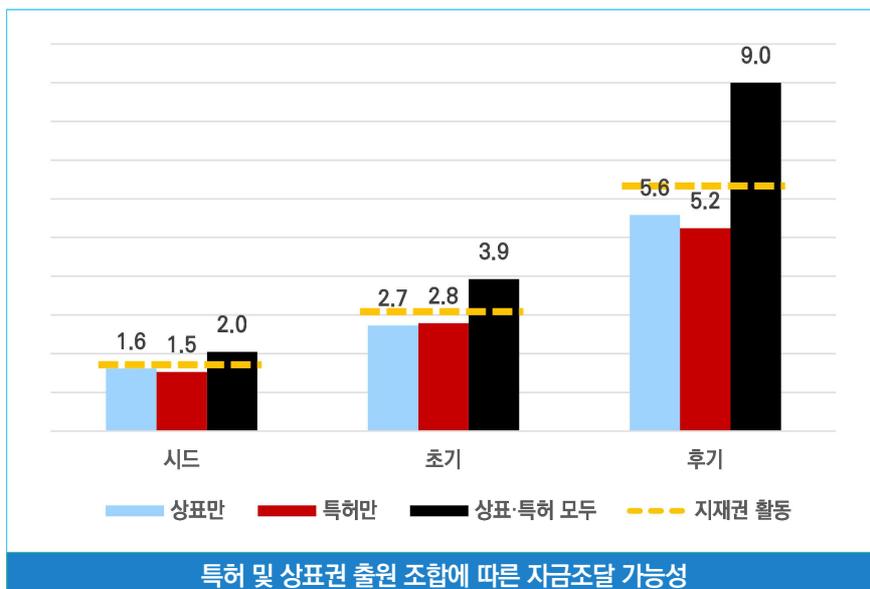
\*\*\* :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IV.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과 자금조달 가능성



### 3 지식재산권 출원 유형과 자금조달 가능성

- 스타트업 투자단계 전반에 걸쳐서 미출원 기업 대비 특허 및 상표 출원 조합에 따른 투자단계별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은 최소 1.5배에서 최대 9.0배까지 상승하며,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경우의 상승 효과가 가장 높음
  - (시드) 미출원 기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 증가 정도는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스타트업은 2.0배, 상표만 출원한 기업은 1.6배, 특허만 출원한 기업은 1.5배 높은 편
  - (초기) 미출원 기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 증가 정도는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스타트업은 3.9배, 상표만 출원한 기업은 2.7배, 특허만 출원한 기업은 2.8배 높은 편
  - (후기) 미출원 기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 증가 정도는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스타트업은 9.0배, 상표만 출원한 기업은 5.6배, 특허만 출원한 기업은 5.2배 높은 편



[표 10] 콕스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3): 특허 및 상표권 출원 조합에 따른 자금조달 가능성

종속변수: 스타트업 투자단계		시드	초기	후기
독립변수	상표만 출원	1.615***	2.726***	5.584***
	특허만 출원	1.527***	2.784***	5.242***
	특허·상표 모두 출원	2.047***	3.929***	8.999***
통제변수	산업 더미	포함		
	관측치	31,182		
	기업수	2,615		
Log-likelihood		-21,136.139	-23,398.48	-5,343.6331

\*\*\* :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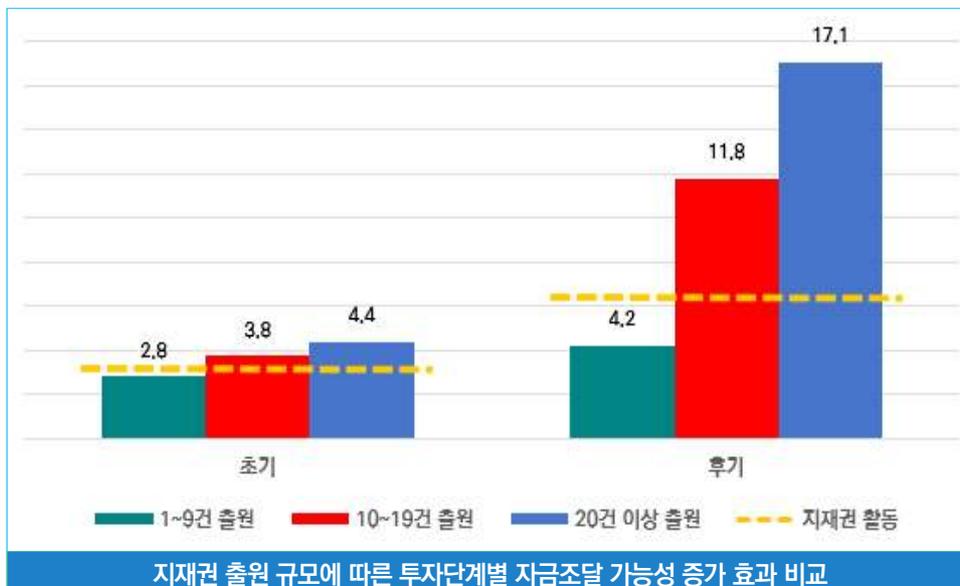
## IV.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과 자금조달 가능성



### 4 지식재산권 출원 규모별 자금조달 효과 비교

#### 지재권 구간별 자금조달 효과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규모를 합산하여 1~9건 출원을 1구간, 10~19건 출원을 2구간, 20건 이상 출원을 3구간으로 구분한 후 각 구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초기 및 후기 투자단계 분석 실시
- 시드 단계는 지식재산권 출원규모가 적어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기 어려운 관계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 특허나 상표를 모두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규모에 따른 투자단계별 자금조달 가능성은 미출원 기업 대비 최소 2.8배에서 최대 17.1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기) 미출원 기업 대비 출원 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은 2.8~4.4배이며, 20건 이상 출원 시 4.4배로 가장 높음
  - (후기) 미출원 기업 대비 출원 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은 4.2~17.1배이며, 20건 이상 출원 시 17.1배로 가장 높음



[표 11] 콕스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4): 지재권 출원 규모별 자금조달 가능성 증가 효과 분석

종속변수: 스타트업 투자단계		초기	후기
독립변수	1~9건 출원	2.824***	4.235***
	10~19건 출원	3.764***	11.802***
	20건 이상 출원	4.398***	17.076***
통제변수	산업 더미	포함	
	관측치	31,182	
	기업수	2,615	
Log-likelihood		-23,401.306	-5,277.7232

\*\* , \*\*\* : 95%,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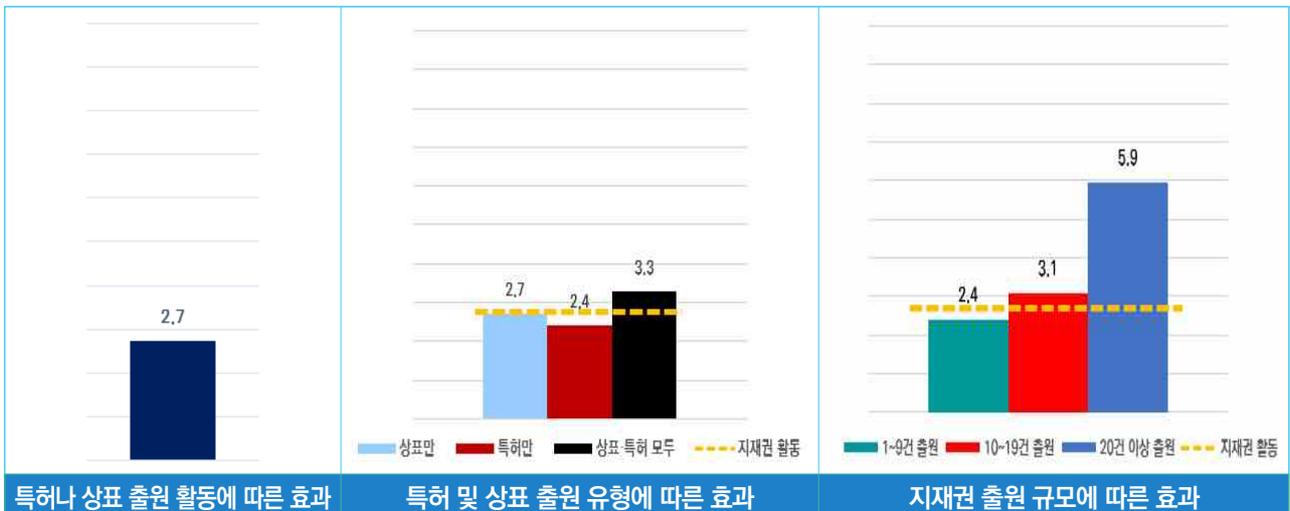
## IV.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과 자금조달 가능성



### 5 엑시트(투자 회수)과 지식재산 활동의 관계

- **특허나 상표 출원 활동은 스타트업의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엑시트 가능성을 2배 이상 증가**
  - (특허나 상표 출원) 지식재산 활동을 수행한 경우 미출원 기업 대비 엑시트 가능성은 2.7배 상승
  - (지재권 출원 유형) 특허와 상표 출원을 함께 수행한 스타트업은 미출원 기업 대비 엑시트 가능성은 최대 3.3배 상승
- **특허나 상표를 20건 이상 출원 시 스타트업의 엑시트 가능성은 5.9배 상승**
  - (지재권 출원 규모) 출원 건수에 따른 분석 시 미출원 기업 대비 엑시트 가능성은 최소 2.4배에서 최대 5.9배 상승

〈 특허·상표 출원 활동 전략별 엑시트 가능성 증가 효과 〉



[표 12] 콕스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5): 지재권 출원 활동 형태에 따른 엑시트 성공 가능성

종속변수: 스타트업 투자단계	미출원 기업 대비 효과	Log-likelihood	통제변수	관측치	기업수
모형1	특허나 상표 출원	2.741***	산업데이터 포함	31,182	2,615
모형2	상표만 출원	2.722***			
	특허만 출원	2.406***			
	특허·상표 모두 출원	3.286***			
모형3	지재권 1~9건 출원	2.383***			
	지재권 10~19건 출원	3.077***			
	지재권 20건 이상 출원	5.931***			

\*\*\* :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V. 결론 및 시사점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 V. 결론 및 시사점



### 스타트업에서 지식재산 활동 강도의 경우 세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차이 존재

- (산업 대분류 기준) 금융보험업은 지식재산권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제조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은 특허 출원,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교육업 및 숙박음식점업은 상표 출원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활동이 집중
- (산업 중분류 기준) 정보통신업의 경우 출판업, 제조업의 경우 의료 분야가 지식재산권 활동이 활발한 편
  - (정보통신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분야는 특허활동, 정보서비스 및 영상오디오 분야는 상표활동 중심
  - (제조업) 전자·전기·기계 등의 분야는 특허활동, 식품·음료, 가죽, 섬유, 가구 및 화학 분야는 상표활동에 각각 집중

### 한국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은 투자단계별로 투자 유치 가능성 상승에 기여

- (특허나 상표 출원) 특허·상표 출원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은 모든 투자단계에 걸쳐 미출원 기업 대비 높으며, 그 효과가 가장 높은 투자단계는 후기로 미출원 기업 대비 투자자금 조달 확률은 최대 6.3배까지 상승
- (국내 vs 해외 지식재산권) 시드 단계를 제외하면 미출원 기업 대비 투자자금 조달 가능성은 국내 지식재산권만 출원한 스타트업보다 해외 지식재산권까지 출원한 스타트업이 더욱 높았으며 투자자금 조달 확률은 최대 7.1배까지 상승
  - (지식재산권 효력 범위와 투자유치) 초기 스타트업은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을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한 후, 추가적 투자유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해외까지 지식재산권 출원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 (특허·상표 출원 유형) 투자단계에 관계없이 미출원 기업 대비 상표만, 특허만 그리고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경우 전체에 걸쳐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9.0배까지 상승
  - (복합 지식재산권 출원) 시드, 초기 및 후기 단계 모두 특허나 상표만 출원한 경우에 비해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했을 때, 투자자금 조달 확률 상승 정도가 높은 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을 출원한 기업은 투자자금 유치 시 투자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
- (특허·상표 출원 규모) 스타트업 투자 단계 중 초기 및 후기 단계에서 20건 이상 출원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금조달 가능성 상승을 보였으며, 미출원 기업 대비 투자자금 조달 확률은 출원 규모에 따라 최대 17.1배까지 상승
  - (투자단계와 출원 규모) 사업을 착수하는 시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출원 경험이 작용하며, 지속적 투자유치 성공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추가적 출원이 중요한 요소

### 지식재산권 출원은 투자 유치 외에 투자자금 회수(엑시트) 가능성도 증대

- (특허·상표 출원) 미출원 기업 대비 투자자금 조달 확률은 특허나 상표 출원 활동 시 2.7배
- (특허·상표 출원 형태)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하면 3.3배로 여러 분야의 지식재산권 출원 경험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엑시트 성공 가능성도 증가하기에 지식재산권 출원 영역 다변화는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회수에도 긍정적 영향
- (특허·상표 출원 규모) 지식재산권 출원 규모에 있어서 미출원 기업 대비 투자자금 조달 가능성은 10~19건 출원한 경우는 3.1배, 20건 이상 출원한 경우는 5.9배로 출원 규모와 엑시트 성공 확률 증가 정도는 비례하므로 스타트업의 지속적 지식재산 활동 역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V. 결론 및 시사점



### ● 스타트업 특허·상표 활동과 자금조달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

- EU와 한국의 결과를 통해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활동이 투자자금 조달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는 점에서 스타트업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시 해당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적극적 특허·상표 출원 활동 필요
- 스타트업 창업자는 투자유치 시 시장 개척이나 사업 신뢰성 강화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특허·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강조하는 전략 수립 필요
-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지원이나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정책 필요
- 스타트업의 특허·상표권 출원을 확인 및 독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벤처캐피탈도 투자대상 선정 시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경험 확인 필요
  -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효과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에서 특허와 상표를 패키지로 출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기존 정책에 대한 홍보 시급
  - 스타트업의 특허·상표 출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R&D 투자나 지원에 상응하는 특허·상표 활동 지원 및 특허·상표 출원기업과 벤처투자자 간 연계 정책 수립 등 필요

### ● 스타트업의 원활한 성장과 사업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활동이 필수

- 투자단계 전반에 걸쳐 특허 및 상표 등의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출원은 미출원 스타트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결과가 일관되게 관측
-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면 스타트업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및 정책자금 공급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창업 초기부터 꾸준한 지식재산 활동 수행 필요
- 스타트업 창업자는 지식재산을 기술력을 축적하는 수단을 넘어서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며, 투자자의 자금회수 가능성 및 개발·보유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지표로 인식해야 함

### ● 스타트업 성공 가능성을 확대하려면 지식재산 활동의 양적 축적도 중요

- 스타트업의 엑시트 단계 진입은 주식시장에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자금조달 제약을 완화하며,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회수 등을 달성한 상태이기에 스타트업의 성공을 의미
-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활발할수록 개별 투자 단계의 자금조달 가능성 상승 외에도 엑시트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는 지식재산 활동의 양적 팽창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시드에서 후기에 이르는 사업 착수나 확장 단계에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활동 축적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잠재력과 투자자에 대한 기술 신뢰성을 향상시키면 투자자금 회수나 사업 성공 가능성도 상승

# 붙임자료



## ● 붙임 1. 스타트업 단계 구분 방식

- 스타트업의 단계는 시기,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시드, 초기, 후기 및 엑싯(투자 회수)으로 분류

[부표 1] 기업 규모 분류 기준

구 분	투자 단계			엑싯 (투자 회수)
	시드	초기	후기	
시기	창업 극초기로 pre-A 단계까지 포함하며, 해당 단계 투자는 주로 엔젤 투자자가 존재하나 동업자나 창업자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함	제품·서비스 출시 후, 비즈니스 모델 안정화를 달성한 상태로 pre-B 단계를 포함한 Series-A 및 Series-B 단계 투자 등을 의미	사업모델 정착 이후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로 Series-C 이후 상태부터 기업공개 준비 단계(Pre-IPO)를 포괄	사업이 본격적인 수익 성과 확장을 실현하며, 창업자나 투자자는 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자 모집(기업 공개: IPO)이나 인수 합병(M&A) 등을 실시
자금조달 규모	평균 1~10억	평균 10~200억	평균 200~1,000억	평균 1,000억 이상
자금조달 출처	동업자, 엔젤투자자 및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금융기관, 사모펀드 및 대기업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투자은행, 금융기관 및 대기업	사모펀드, 투자은행, 금융기관, 대기업 및 일반 주식투자자

# 붙임자료



## ● 붙임 2. 한국 자료의 분석대상 기업 관련 빈도표 (관측 빈도 및 비율)

[부표 2] 특허·상표 출원 여부에 대한 빈도 및 비율

구 분	투자 단계			엑시트 (투자 회수)	계
	시드	초기	후기		
상표만 출원	404	505	148	96	1,153
비율(%)	(18.6)	(20.4)	(25.0)	(21.0)	(20.2)
특허만 출원	459	638	148	100	1,345
비율(%)	(21.1)	(25.8)	(25.0)	(21.8)	(23.6)
특허와 상표 모두 출원	468	647	183	90	1,388
비율(%)	(21.5)	(26.1)	(30.9)	(19.6)	(24.3)
특허나 상표 모두 미출원	845	687	113	172	1,817
비율(%)	(38.8)	(27.7)	(19.1)	(37.6)	(31.9)
관측치 합계	2,176	2,477	592	458	5,70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부표 3] 지식재산권(특허 및 상표 합계) 출원 빈도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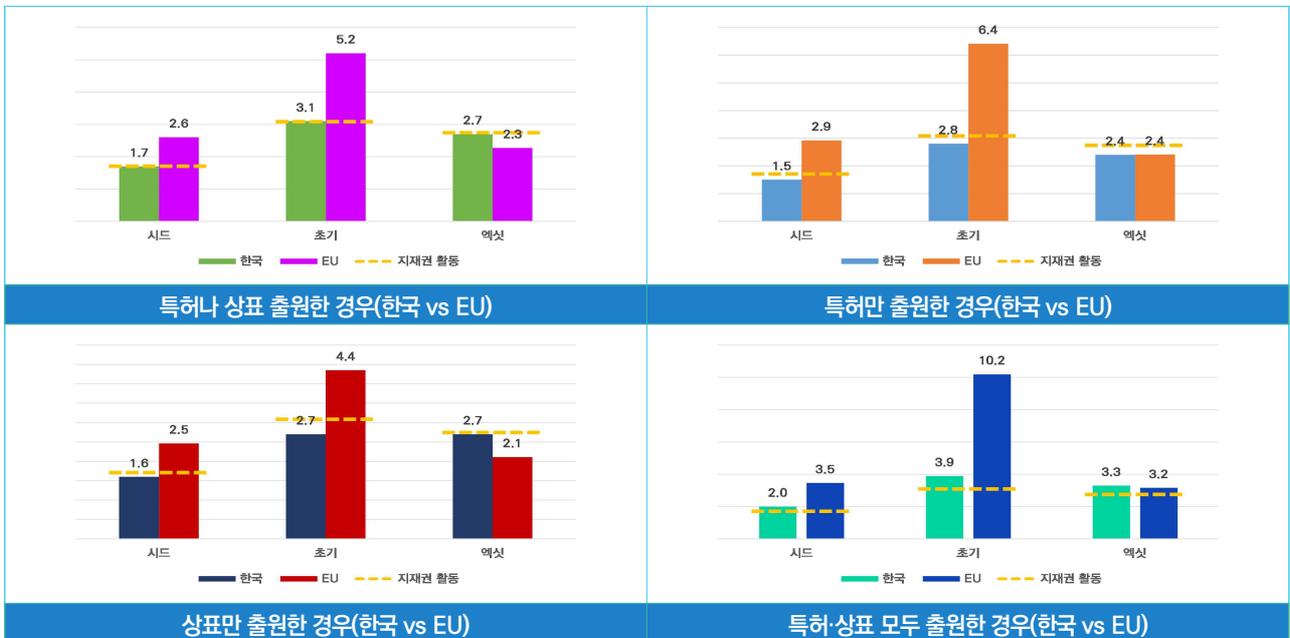
구 분	투자 단계			엑시트 (투자 회수)	계
	시드	초기	후기		
관측치 중 지식재산권 1~9건 출원 빈도	1,160	1,284	247	196	2,887
비율(%)	(53.5%)	(51.8%)	(41.7%)	(42.8%)	(50.6%)
관측치 중 지식재산권 10~19건 출원 빈도	132	298	120	42	592
비율(%)	(6.1%)	(12.0%)	(20.3%)	(9.2%)	(10.4%)
관측치 중 지식재산권 20건 이상 출원 빈도	39	208	112	48	407
비율(%)	(1.8%)	(8.4%)	(18.9%)	(10.5%)	(7.1%)
관측치 중 지식재산권 미출원 빈도	845	687	113	172	1,817
비율(%)	(38.8%)	(27.8%)	(19.1%)	(37.5%)	(31.9%)
관측치 합계	2,176	2,477	592	458	5,70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 붙임자료



## ● 붙임 3. 지식재산권 출원에 따른 EU와 한국의 스타트업 자금조달 가능성 비교

- 미출원 기업 대비 특허·상표 출원 스타트업의 투자단계별 분석 시 시드와 초기 투자 가능성은 유럽이 한국 대비 약 1.4~2.3배 정도 높으나 엑시트 가능성은 한국이 높은 편
  - (시드) 특허·상표 출원에 따른 미출원 스타트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은 유럽의 경우 최소 2.5배에서 최대 3.5배로 한국의 최소 1.7배에서 최대 3.1배 대비 높은 편
  - (초기) 특허·상표 출원에 따른 미출원 스타트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은 유럽의 경우 최소 4.4배에서 최대 10.2배로 한국의 최소 2.8배에서 최대 4.4배 대비 높은 편
  - (후기) 특허·상표 출원에 따른 미출원 스타트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은 한국의 경우 최소 5.2배에서 최대 9.0배이며 유럽은 별도 분석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 (엑시트) 특허·상표 출원에 따른 미출원 스타트업 대비 자금조달 가능성은 한국의 경우 최소 2.4배에서 최대 3.3배이며 유럽의 최소 2.1배에서 최대 3.2배 대비 근소하게 높은 편



[부표 4] 특허·상표 출원 여부에 따른 EU와 한국의 스타트업 자금조달 가능성 상승 정도 비교

구분		투자 단계			엑시트 (투자 회수)
		시드	초기	후기	
특허나 상표 출원 활동	한국	1.7배	3.1배	6.3배	2.7배
	EU	2.6배	5.2배	-	2.3배
상표만 출원	한국	1.6배	2.7배	5.6배	2.7배
	EU	2.5배	4.4배	-	2.1배
특허만 출원	한국	1.5배	2.8배	5.2배	2.4배
	EU	2.9배	6.4배	-	2.4배
특허·상표 모두 출원	한국	2.0배	3.9배	9.0배	3.3배
	EU	3.5배	10.2배	-	3.2배

2025년 7월 발행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구진**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병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용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고유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지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이경애	한국개발연구원
이지혜	한국개발연구원

---

**홈페이지** [www.kiip.re.kr](http://www.kiip.re.kr)

**문의** 원용완 부연구위원 (02-2189-2668)

**디자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지식재산과 경제성장